

# 2002년 가스정책방향



안철식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1. 머리말

가스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는 물론이고, 가스공사 및 가스관련업계 및 기관들에게 있어, 2002년은 이 땅에 가스문화가 생겨난 이후 가장 분주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질적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속에 준비되고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신년벽두부터 시간을 잊어가며 업무에 폭 빠져있는 동료 직원들과 더불어, 국민이 깨끗한 에너지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는 길에 매진할 의지를 다지며,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포함한 2002년 가스산업 정책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2002년 가스산업 주요업무 계획

### 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본격 추진

#### (1) 추진배경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그동안 공기업 독점 또는 지역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자원배분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국가스공사를 주축으로한 독점 공기업체제의 가스산업구조는 가스의 최초도입에서 전국배관망 완공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주요국들의 에너지산업 또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향하여 급격히 변모하고 재편되어가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가스산업만이 기존체제에 안주해서는 산업발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당위의 과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구조개편 기본계획**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가스산업의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판매부분을 설비부분과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자연독점적 성격인 설비부분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며,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먼저 경쟁체제를 구축한후 민영화토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스공사를 도입도매부분과 설비부분(인수기지, 주배관망)으로 구분하여, 도입도매부분은 기존도입계약을 중심으로 3개자회사로 분할하여 2002년말까지 민간에 매각
- ※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추후 결정
- 설비부분은 가스공사가 계속관리하되, 3개 도입도매회사가 공동으로 이용가능토록 설비공동이용제(OAS, Open Access System) 실시
- 가스공사의 정부지분은 2002년말까지 민간에 매각하여 민영화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적지분 일부유지
- 현행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중인 소매부분의 경쟁도입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되, 도매부분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단계적 추진

**(3) 그간의 추진상황**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94년이후 시행된 전문기관들에 의한 연구용역, 외국사례 분석, 각계 의견수렴, 가상실행등을 거쳐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등 3개법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핵심적 준비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최근 진행된 구체적인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스공사 1단계 증자(1,200억원) 완료('99. 12월)
- 2단계 증자(1,300억원)는 국내외 증시상황을 고려하여 유보

(단위 : 억원, %)

구 분		공 적 지 분				일 반 지 분	계
		정 부	한 전	지 자 체	소 계		
1단계 증자전 ( '99.11월 )	지 분	1,338	945	381	2,664	0	2,664
	지 분 율	50.22	35.47	14.31	100.0	0	100.0
1단계 증자후 ( 현행 )	지 분	1,038	945	381	2,334	1,500	3,864
	지 분 율	26.86	24.46	9.86	61.18	38.82	100.0

- 가스공사의 기존 3개 자회사 정리
  - 매각 : (주)청열('99.3), 가스해운(주)('00.11)
  - 합병 : 가스엔지니어링(주)을 가스기공(주)에 흡수합병('01.6)
- 가스공사의 설비부분과 도입도매부분 분리를 위한 전단계로 기능별 회계분리시스템 구축 ('00.12)
-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 국회제출 ('01.11)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및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 가스공사 민영화 및 도입도매회사 분할방안 등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추진중

### (4) 2002년 추진계획

금년은 수년간에 걸쳐 차곡차곡 준비해온 작업 내용을 토대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실행에 옮기는 지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에 다음과제들을 가스공사,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더불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제·개정 추진
  - 구조개편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홍보 등 제반노력 강화
  - 동 법안의 하위규정 마련 및 입법절차 완료
- 도입도매회사 분할방안 마련 및 시행
  - 전문연구기관(예정연)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스도입도매회사의 적정 분할방안을 마련
  - 이를 바탕으로 우선 가상실행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보아 최종분할 추진
- 가스공사 및 자회사의 민영화방안 마련
  - 구조개편이후 가스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적정 소유지배구조 및 구체적인 매각방안 마련
  - 지배주주, 국민주, 외국인참여한도, 공적지분율 규모등 검토 결정
-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제도 수립 및 정비
  - 에너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칙 제정, 가스거래소 설립, 설비비용규칙, 시장운영규칙, 가스계통운영규칙 제정 등

### 나. 가스안정공급기반 구축

지난 86년이후 추진된 LNG 공급 주배관망 건설

사업을 금년 강원권 배관망 건설을 끝으로 완료함으로써, 총연장 2,442km의 배관망을 통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가스산업 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LNG 도입협상시 우리나라의 동고하자 수요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계절간 수요편차에 따른 가스냉방 보급지원등 국내 수요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한다.

### 다. LNG 장기수급계획 수립

LNG 수요전망, 도입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6차 LNG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의 LNG 수급전망 작성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이미 전문기관의 용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문회의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1/4분기중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동 계획은 향후 수년간 LNG 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주요한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 라. 가스요금의 안정 유도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보완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의 가스판매량이 공급비용 산정당시보다 크게 증가하여 공급비용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중전 공급비용을 계속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2001

국민에게 아주 깨끗한 에너지를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추정판매량과 실제판매량간 오차범위 최소화를 위해, 공급비용 산정주기를 조정하고(최장3년 매년실시), 시·도 물가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중에 공급비용의 사후 정산제도 도입여부를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입량/판매량 오차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LPG 가격자유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시장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리부, 지자체 및 관련협회등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가격자유화 이후 1차공급자(수입·정유사)의 가격하락분이 최종 유통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격 모니터링 및 시장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계획이다.

마. 가스유통구조의 개선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내용을 토대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 공급 활성화, 공급자의 LPG 품질 및 정량거래등 유통 건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하위규정 정비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급차질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포함한 가스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수립한 LPG 체적거래제 개선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력이 발휘되고 정착되도록 필요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의 책임을 투명하게, 그리고 선진화되게 하기 위하여 LPG 유통단계 상하간 합리적인 협력관계 형성에도 용기상호 표시제 정착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3. 맺음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그리고 뉴라운드 등 국제규범은 우리들로 하여금 Clean Energy를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만들 것이며, 국민들의 환경욕구 또한 그러할 것이다. 다름아닌 가스에너지가 그 주요한 대안일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에게 아주 깨끗한 에너지를 수급차질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포함한 가스산업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새해 초반 정부, 가스공사, 관련업체등 가스인 모두가 이러한 가스산업의 변혁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아가는 길을 함께 인식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